

한국불교 세계화 ‘최전방 활약’

국제포교사 부산·울산·경남지부 창립법회 갖고 본격활동

우리 짙에 찾아온 푸른 눈의 외국인이 다가와 ‘삼귀의’가 무엇이나 물어온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믿고 따르라는 뜻의 한자로 이뤄진 삼귀의(三歸依)는 영어로 ‘The three refuges’다. ‘refuges’는 피난이나 도피, 은신처나 보호막 등을 일컫는 단어로 종교적 의미로 쓰일 때는 마음의 위안 등으로 표현된다.

한국 불교문화와 알고자 사찰을 찾은 외국인인 안내하고 포교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제2외국어 등으로 포교하는 이들이 있다. 국제포교사이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 부산·울산·경남지부(지부장 김성립, 이하 부울경지부)는 1월 10일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07년 10월 부처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우고자 열었던 부산 영광도사에서 ‘불교영어교실’을 모태로 처음 모였던 국제포교사들은 2009년 7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설립에 이어 응시자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창립회원은 제14기 국제포교사 22명과 기존의 국제포교사 6명 등 28명이다. 이들 가운데 영어 가능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영어 전문 국제포교사다.

법회는 전회원이 참여한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국제포교사들의 모임답게 삼귀의와 보현행원을 영어로 불

송하고, <반야심경> 독송, 홍종욱 14기 대표의 지부 경과보고, 김성립 초대지부장 임명장 수여, 감사패 증정, 격려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김성립 초대지부장은 “이제 막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의 길로 나아가려 하는데, 부디 신인국제포교사들에게 신심과 원력, 그리고 불퇴전의 용심에 가피를 내려 불법을 널리



부산·울산·경남지부 국제포교사들이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육법공양을 올리며 불법홍포를 발원한 후 기념촬영했다.

리 펼칠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감사패는 2008년 7월 제14회 국제포교사교시에 응시하기 위한 첫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에 공부장소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3개월의 짧은 교육과정임에도 훌륭한 성적을 거둔 이두석 강사(11기 국제포교사)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제14교구본사 범어사 포교국장 일광 스님, 제15교구본사 통도

사 포교국장 선해 스님 및 박상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장, 우성연 대구·경북지부장, 서울지부 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일광 스님은 “마음으로 포교해야 감동을 줄 수 있고, 내면의 본질적 울림이 없으면 아무런 열심도 포교를 해도 소용없다”며 “불교 영어에 관한 지식과 함께 자기 생활의 완성을 이루는 수행에도 더

교를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1월 사물놀이, 2월 연 만들어 날리기, 3월 김밥과 만두 만들기, 4월 태권도, 5월 등 제작과 제등행렬 체험, 6월 다도, 7월 서예, 8월 템플스테이, 9월 송편 만들기, 10월 남산투어, 11월 탈춤, 12월 김치 만들기 등 월별 프로그램을 갖추고 신인 국제포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찰의 외국인 템플스테이 행사를 지원하고, 사찰 주요 문화재의 영·일어 안내문 정비, 기존 포교사 영어법문 교육, 부울경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의 지도강사 등 한국 불교 세계화의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된다.

지난 해 부산 대표 사찰인 범어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외국인인은 432명으로 내·외국인 총 방문객 2008명 중 20%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관광지로 사찰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의 짙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법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국제포교사들이 먼저 다가가 참선, 다도, 예불, 발우공양, 절 등 우리 불교문화의 단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나간다면, 고국에 돌아가서도 불교와의 인연을 놓치지 않고 불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불교수도이자 전 세계에 불법을 흥포하는 소통의 허브인 만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국제포교사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본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근검절약해 베풀어야 진정한 회향”

통도사 53일 화엄산림대법회 성료



1월 14일 통도사에서 봉행된 화엄산림대법회에서 사부대중이 경건하는 모습. 맨앞이 주지 정우 스님.

53일간의 구법여행 통도사주지 정우 화엄산림법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 화엄산림대법회가 봉행된 1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은 회향 법문을 듣기위한 불자 3만여 명이 설법전과 지하 선방, 공양간, 대웅보전 앞마당 등 경내를 가득 메웠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화엄경>의 의미와 참다

운 회향을 주제로 법문했다.

지관 스님은 “경주 최 부자집은 9대가 부자로 살았는데 이들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적·마음적으로 회향해줬기 때문에 오랜 세월 부자로 살 수 있었다. 부자는 아니어도 항상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해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낀 것을 나누어주는 습관이 진정한 회향”이라고 말했다.

이러 스님은 “통도사에서 해마다 화엄산림대법회를 통해 살아가면서 공덕을 짓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만큼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면 부처님과 보살님, 화엄신장과 본인 스스로에게도 환희심이 넘쳐나는 회향을 통해 공덕을 쌓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작년 5월 서거한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에 참석했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갑작스럽게 노 전 대통령님이 떠나고 보니, 간 곳도 온 곳도 머무른 곳도 없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나갈 때 후회 없도록 선근공덕을 많이 지어놓자”고 당부했다.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하루 평균 1만여 명, 주말 2만여 명, 입재 및 회향일마다 3만여 명이 참석해 55만 여 불자들이 통도사를 다녀갔다. 지관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이어진 회향 법회에는故 오근섭 전 양산사장의 49세 막제도 더 불어 봉행했다. 박지원 기자

어린이포교 위한 특별한 하루

23일, 하루차집과 특별한 법석 개최

동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호선, 공덕원 주지는 1월 23일 부산불교회관 일원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하루차집과 특별한 법석을 개최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 주관, 부산시불교연합회와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동편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우리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 포교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부산불교회관 2층에 위치한 전통차집 보송에서는 ‘어린이포교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이 운영된다. 오후 3시 불교회관 8층 여여선원(주

지 정)에 대법당에서는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초청, 어린이 포교를 위한 나눔의 법회’가 봉행된다. 본 법회에는 동편 이사장 심산 스님의 격려사와 설공부 부산시연합신도회장의 축사, 정여 스님의 법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법륜유치원 관음반 어린이 18명이 꾸미는 동구(童叟) ‘부처님의 전생부처 아기부처님 오셨네’, 보리동이의 인형극 ‘하얀눈썹 호랑이’, 공덕원 연화합창단의 찬불가 합창 등 다채로운 특별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051) 864-4569 박지원 기자

“지혜의 돛단배로 성불의 큰 바다를”

사하구불교련, 경인년 신년하례회 봉행

부산시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상연, 극락암 주지)는 1월 11일 감전동 약수사(주지 혜우)에서 경인년 신년 하례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발원문 낭독(부회

장 혜원 스님, 성불사 주지), 회장 상연 스님의 신년사, 내빈 축사, 축원(갑사 현각 스님, 서림사 주지), 축하 퍼포먼스,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이어졌다. 상연 스님은 신년사에서 “정지인

은 나라의 살림을, 기업인은 회사를, 선생님은 학생을, 국민 개인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할 때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새해에는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돛단배가 되어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한다면 성불이라는 큰 바다를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하례회에 이어서는 지역 내

불우이웃에 쌀 100포의 전달식도 함께 가지며 새해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눴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 상연 스님, 수석부회장 상법 스님(금강사 주지), 상임부회장 법인 스님(약산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 및 조경태 국회의원, 김홍남 사하구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051)291-9681 박지원 기자

사회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 지역내 구획확장,
-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우)110-734 서울 중로구 안국동 175-87 6층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02)2004-8200 팩스: (02)737-0697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역판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니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공명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격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를 부쳐남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년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권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에도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 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번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운

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도지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 공금가격 별도 상담요)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다니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일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팁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스님 30%할인)